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한 사례연구*

천 호 준**

1. 서론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자료수집
 - 3) 자료분석
3. 기록화 사례 분석결과
 - 1) 이벤트 이전의 기록화
 - 2) 이벤트 운영의 기록화
 - 3) 이벤트 이후의 기록화
4. 논의
5.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한국체육사학회 2011 동계학술대회(주제: 기록과 유물로 본 체육사)에서 구두 발표한 「아시아의 유산 전승을 위한 아시안게임의 기록화」를 다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G00089).

**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조교수. 주요 논저: 「올림픽 구술사를 통한 기억의 역사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여자배구 동메달리스트들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18(3), 한국체육사학회, 2013;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기록학연구』 31, 한국기록학회, 2012;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24, 한국기록학회, 2010.

▪투고일 : 2014년 9월 20일 ▪최초심사일 : 2014년 9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5일.

[국문초록]

현대 사회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스포츠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효과적으로 기록화 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1986년서울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88년서울올림픽대회 그리고 2002FIFA월드컵대회 등과 같은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다수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체육·스포츠 현장에서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화 하여 후대에 전달하려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인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효과적으로 기록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하기 위하여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진행 단계별로 기록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진행단계를 이벤트 이전단계, 운영단계 그리고 이후단계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기록화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후 문헌고찰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선정된 사업의 개요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단계별로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벤트 이전단계는 국민의 기록(The People's Record)사업, 운영단계는 올림픽대회 지식관리(Olympic Game Knowledge Management)사업 그리고 이후단계는 올림픽 구술사(Olympic Oral History)사업이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기록 사례는 다양한 계층의 경험을 포착하여 기록화 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이벤트 이전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올림픽대회 지식관리 사례는 대회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의 업무 활동과 지식을 기록화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운영단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올림픽 구술사 사례는 이벤트의 전 단계에서 발생한 결락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벤트 이후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개최가 예정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며,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록관리 방법론을 마련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 스포츠이벤트, 메가 스포츠이벤트, 스포츠 기록, 스포츠 유산, 기록화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한 국가뿐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 인간이 관여하는 대부분의 분야와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파생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대회 개최 이후에는 소중한 유산을 남겨 놓는다¹⁾.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결과물로 남겨지는 유산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기록유산은 지식사회의 도래와 함께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스포츠 기념관과 박물관이 성장하고 있고, 둘째, 스포츠 역사와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지식의 전달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록유산이 큰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

이를 감안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그리고 국

1) 인상우, 「시리즈 효과: 스포츠이벤트 레거시의 형성과정」, 『한국체육학회지』, 50(1), 한국체육학회, 2011, 123쪽.

2) 천호준·인상우, 「올림픽유산으로서의 올림픽 기록사료 관리」, 『한국체육사학회지』, 16(1), 한국체육사학회, 2011, 67쪽.

제기록회의(ICA) 같은 유산 관리 기관들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에서 파생되는 각종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나 국가들의 연구자들 역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유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외 연구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Cristina Bianchi(1999)³⁾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호주의 체육·스포츠 사학자 Richard Cashman(2000)⁴⁾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인 올림픽의 기록유산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충과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메가 스포츠이벤트 중 주로 올림픽을 대상으로 기록유산의 관리에 대한 실태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⁵⁾, 이들 기록유산의 가치를 규명하고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유산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한 연구⁶⁾가 이루어졌다. 또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인 올림픽 기록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체제 마련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 연구들⁷⁾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일정한

3) Bianchi, C., Sport History? Sports Archives!, Journal of Olympic History, Vol.7(1), Winter, 1999, pp.1-2.

4) Cashman, R., Olympic Scholars and Olympic Records: Access and management of the Records of an Olympic Games.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Olympic Research, September, 2000, p.207.

5) 천호준, 「서울올림픽 기록물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29, 2007, 279-302쪽.

6) 천호준, 『올림픽 사료의 기록학적 평가-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273쪽.

7) 천호준, 「올림픽 기록물의 보존 및 그 과제」, 『한국체육사학회지』, 14, 한국체육사학회, 2004, 65-78쪽. 천호준, 같은 글, 2008, 1-273쪽.

8) 천호준·인상우, 같은 글, 67-82쪽.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최 이후 남겨진 기록유산만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제와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시(限時)조직⁹⁾으로 운영되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대회 개최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상당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복잡한 행위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회 개최이전부터 이후까지의 행위들을 기록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혹은 각 단계별로 기록관리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들을 연동시켜 놓지 않으면) 중요한 기록유산이 과편화되거나 소실될 수 있다. 즉,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기록유산이 후대에 전달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기록화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 속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감안하면 후대에 반드시 전달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기록화 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에 대한 관심은 스포츠사학 분야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호주의 스포츠 사학자 Richard Fagan(1992)¹⁰⁾은 그의 연구에서 스포츠 분야의 독특한 이벤트를 기록으로 남겨 놓기 위해서는 기록학계에서 거시평가 이론 중의 하나로 발전시킨 문서

9) 한시기관(Ad-hocracy)의 기원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특별임무를 수행했던 기동타격대(Task for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Ad-hoc-team이라고 불리웠던 이 부대는 그들의 임무가 완수되면 해산되었다가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면 재구성되는 특성을 띠었다. 베니스는 한시기관(Ad-hocracy)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한시기관(Adhocracy)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으로 조직된,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임시적인 체제이다”(임희연, 『한시기관의 기록관리와 활용방안: 과거사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제56회 월례연구발표회 세미나 자료, 2007, 2쪽).

10) Fagan, R., “Acquisition and Appraisal of Sports Archives”, *ASSH Bulletin*, Vol.16, 1992, pp.36-47.

화전략론(Documentation Strategy)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 바 있다. 스포츠사 분야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화 작업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서화전략론의 약점¹¹⁾으로 인해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에 이를 적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의 기록학계에서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국제행사들의 기록화와 관련한 일부 연구들¹²⁾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한시조직의 기록화에 대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과 함께 기능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동일한 한시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해서 이들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보완 사항과 기록화 방안들¹³⁾은 의미가 크다. 특히, 제시된

-
- 11) 문서화전략론은 현대 사회의 특정한 주제와 사건에 주목하여 이를 미래에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록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여러 기관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협력 체계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론이다. 그러나 기록을 관리하기에는 지금도 부족한 비용에 해당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과 지나치게 사회 현상에만 치중하고 주제 중심적인 이론이라는 비판 속에 이를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강경무·김상무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서울: 진리탐구. 34쪽).
 - 12) 배나영, 『과거사 위원회 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국외대학교 대학원, 2008, 석사학위논문 / 임희연,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2008, 247-292쪽 / 홍성희, 『국제행사관련 조직위원회의 기록물 관리방안 연구 : Y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외대학교 대학원, 2009, 석사학위논문 등.
 - 13) 국제행사관련 조직위원회가 한시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행사관련 조직위원회의 기록물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폐지기관 혹은 한시기관인 경우, 그 승계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모든 기록물들을 이관해야만 한다. 만일,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으로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각 조직의 변화별 기록물 이관은 승계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바로 이관이 이루어지나, 승계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승계기관이 인수받은 후 소장기록의 목록정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지속적으로 통보한다. 또한 민간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이 변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들은

법제도의 보완은 향후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화 방안은 대회 운영단계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벤트 이전과 이후 단계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효율적인 기록화를 위해서는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기록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이미 실행된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효과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 사례를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라이프 사이클별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진행단계를 이벤트 이전단계, 운영단계 그리고 이후단계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기록화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단계별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개요와 주요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개최가 예정된¹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온전화 기록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기록화 하는데 공헌하여 당대의 풍부한 역사상을 후대에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메가 스포츠이벤트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록관리 방법론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게 된다. 한편, 기능적 발전 방안으로는 기록물의 전자화, 기록관리기준표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국제대회 관련 지식포탈아카이브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홍성희, 같은 글, 2009, 54-73쪽).

14) 한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다수의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역사상과 행위들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기 위하여 기존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단계를 설정하였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시간적 단계는 인상우(2014)¹⁵⁾가 시도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진행 단계의 시간 프레임을 활용하였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라이프 사이클은 유치위원회의 출범으로 시작되는 이벤트 이전(ex-ante Event) 단계, 개최도시 협약과 동시에 시작되는 이벤트 운영(Event Operation) 단계 그리고 대회가 종료되고 청산위원회가 출범하는 이벤트 이후(ex-post Event)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벤트 운영(Event Operation) 단계는 다시 대회준비단계(Preparation phase), 대회개최단계(Game delivery phase) 그리고 대회종료단계(Closure phase)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서 한시조직의 기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¹⁶⁾와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¹⁷⁾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관련 논문 등의 선행연구들

15) 인상우, 「메가 스포츠이벤트 조직위원회의 단계적 변화양상에 대한 탐색」, 『체육과학연구』, 25(2), 체육과학연구원, 2014, 328-340쪽.

16) 국가기록원에는 1986서울아시안게임과 1988서울올림픽대회와 같이 한시조직 즉, 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다.

17)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등이 있다.

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 사례로 2012런던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2000시드니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그리고 LA84 재단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이후, 미리 설정된 시간프레임에 파악된 사례를 대입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시간프레임	연구대상	비고
이벤트 이전 (ex-ante Event)	국민의 기록 사업 (The People's Record Project)	2012런던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벤트 운영 (Event Operation)	올림픽대회 지식관리 사업 (Olympic Game Knowledge Management Project)	2000시드니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벤트 이후 (ex-post Event)	올림픽 구술사 사업 (Olympic Oral History Project)	LA84재단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이벤트 이전단계에서는 2012런던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국민의 기록(The People's Record)사업, 이벤트 운영단계에서는 2000시드니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올림픽 대회 지식관리(Olympic Game Knowledge Management)사업 그리고 이벤트 이후단계에서는 LA84 재단의 올림픽 구술사(Olympic Oral History) 사업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기록관리 사업 중 이들 사업을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이들 사업이 이루어진 시점들이 앞서 제시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단계별 프레임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을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의 기록사업은 가장 최근에 개최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이전단계의 기록화에 시의성 있는 방법론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한시조직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의 공통된 의견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올림픽대회 지식관리 사업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대상으로 지식관리가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로서 이후의 개최 도시나 국가에서 이 사례를 토대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과 지식관리를 위한 체제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올림픽 구술사 사업은 개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해당 스포츠이벤트의 효과적인 기록화를 위해서 시행된 최초의 기록화 사례로서 개최 이후의 기록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방문한 기관과 조사일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방문 2주전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질문문항과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했고, 인터뷰조사 이전에 각 사업 담당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이 질문문항과 참고자료 목록을 전달하여 조사 당일에는 원활한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대상에 따라 약 30분에서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고, 인터뷰의 내용은 부담감이 적은 녹취(audio recording)의 형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표 2> 방문기관 및 조사일정

방문기관	조사일정	인터뷰 대상자(담당업무)
영국 MLA위원회	2011년 12월 26일~30일	Vanessa Harbar (국민의 기록 사업 매니저)
호주 Griffith University	2013년 4월 12일~16일	Kristine Toohy (올림픽 대회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담당자)
미국 LA84재단	2013년 2월 1일~9일	Wayne Wilson (올림픽 구술 사료 채록 사업 기획자)

한편, 방문조사 중에는 다음 <표 3>과 같이 각각의 연구대상별로 사업계획서, 관련 연구물 그리고 사업평가보고서 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사례분석에 이들 자료들¹⁸⁾을 활용하였다.

<표 3> 수집자료 목록

연구대상	자료	수량
국민의 기록 사업	사업평가보고서	1권
올림픽 대회 지식관리 사업	관련 논문 및 보고서	2개
올림픽 구술사 사업	사업계획서	1부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각각의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인터뷰 내용 그리고 방문조사 기관 중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각각의 사례별로 자료를 정리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은 주요 내용을 분석할 수 있었다.

18) Sophia Mirchandani, Katie Norgrove, "The People's Record Community Projects Evaluation 2010-11 Final Report for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Cultural Consulting Network, 2011 / Halbsirth, S. & Toohey, K. "The Olympic Game and Knowledge Management: a Case Study of the Sydney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European Sport Management*, Vol.2001-1, 2001, pp.91-111 / Halbsirth, S. & Toohey, K. "The Sydney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and knowledge management: learning from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Knowledge Scape Pty. Ltd, 2002 / LA84Foundation, "The Proposal file, Oral History Research Proposal Southern California Olympians 1948-1980", LA84Foundation, 1987, pp.1-20.

〈표 4〉 분석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요	사업의 주제 및 목적,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절차
공통		
국민의 기록 사업	세부 내용	국민의 기록 사업의 구성 및 내용
올림픽 대회 지식관리 사업	세부 내용	올림픽 대회 지식관리 사업의 구조, 내용, 평가
올림픽 구술사 사업	세부 내용	구술대상의 선정 및 구술내용

3. 기록화 사례 분석결과

1) 이벤트 이전의 기록화

(1) 국민의 기록 사업의 개요

국민의 기록사업은 영국의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협의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이하 MLA)가 주도한 사업이다. 영국의 MLA는 박물관(Museum), 도서관(Libraries), 기록관(Archives)들과 같은 문화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이 MLA는 조직 성격상 비정부공공기관이며,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of Culuture, Media, Sports)의 예산 지원과 감독을 받고 있다¹⁹⁾.

MLA는 2008년 9월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 개최가 확정되자 런던올림픽대회와 관련된 활동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먼저, 문화올림픽피아드라는 이름의 문화프로젝트에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행사와 문화를 접목시키고 런던 이외 지역으로 올림픽의 열기를 확산하며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가 새

19) MLA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mla.gov.uk>, 2013년 3월 5일.

로운 고객과 접하고 올림픽 참가자와 관광객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인식을 MLA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MLA의 2012런던올림픽대회 관련 프로젝트는 다음 <표 5>²⁰⁾와 같다.

<표 5> MLA의 2012영국올림픽대회 관련 프로젝트

명칭	목적
Stories of the World	세계의 청중들에게 영국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존소들에 대한 혁신과 우수함을 공개
Paralympic Inspirations	시력이 약한 사람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박물관과 유적지에 접근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그룹 투어(Group Tour)와 워크숍(Workshop)을 개최
Mandeville Legacy Project	장애인올림픽이 태동한 지역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과거와 현재의 패럴림픽(Paralympic) 참가자들, 장애인 화가, 유소년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
Setting the pace	2012년에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존소의 역할과 활동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
Our Sporting Life	2012년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의 역사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
The People's Record	올림픽 개최과정 및 올림픽이 영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으로 올림픽 개최도시의 경험을 기록화 하여 영구보존

특히 이 문화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국민의 기록(The People's Record) 사업은 올림픽 개최과정과 올림픽이 영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로 올림픽 개최도시의 경험을 기록화 하여 영구보존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²¹⁾.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2012런던올림픽대회와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보다 빠른 접근과 흥미를 위해서 3가지 영역 즉, 건강, 스포츠, 복지 영역, 젊은 사람들의 열망 영역 그리고 장소의 변화 영역에 걸쳐 세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

20) MLA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2013년 3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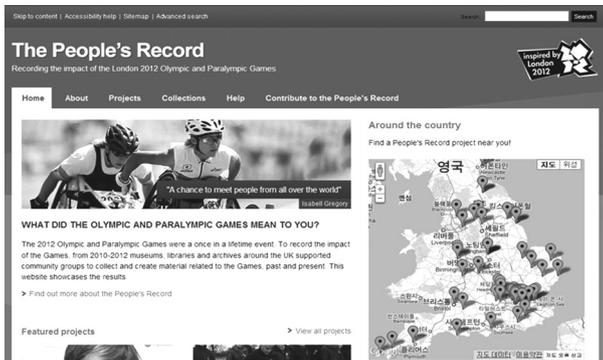
21) 최재희,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영국 MLA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69쪽.

한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²²⁾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2012 런던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후세들을 위해 기록될 필요가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국민의 기록(The People's Record) 사업은 올림픽에 관한 의견들과 반응들을 수집한 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영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들은 올림픽을 통해서 생겨난 경험들과 반응들을 기록화 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기록(The People's Record)은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의 역사와 흐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올림픽공식보고서와 함께 제작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MLA는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순간부터 국가적 분위기를 기록하기 위해 법적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기록물과 이전의 MLA에서 운영한 프로젝트 ‘런던 2012’에 참여한 사람들의 스냅 사진을 (그림 1)과 같은 홈페이지²³⁾를 통해 제공하였다.

〈그림 1〉 국민의 기록 사업 홈페이지



22) Vanessa Harber(국민의 기록 사업 매니저), 2011년 12월 27일, 영국MLA위원회 사무실.

23) 국민의 기록 홈페이지, <http://www.peoplesrecord.org.uk>, 2013년 12월 15일.

이를 토대로 운동, 스포츠, 웰빙, 지역성, 젊은 사람들의 열망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한 의견들을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하였다²⁴⁾. 이상의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부정기적으로 <그림 2>²⁵⁾와 같은 브로슈어(Brochure)로 출간되었다.

<그림 2> 국민의 기록 사업 결과물



(2) 주요 내용

국민의 기록 사업은 2008년 9월에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이후부터 대회가 종료할 때까지의 순간에 국가적 분위기를 기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총 3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²⁶⁾ 각각의 프로

- 24) 천호준, 『올림픽 사료의 기록학적 평가-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2008, 박사학위논문. 77쪽.
- 25) 국민의 기록 홈페이지 참조, 2013년 12월 15일.
- 26) 세부 사업에 지역 명칭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별 사업은 원어(영어)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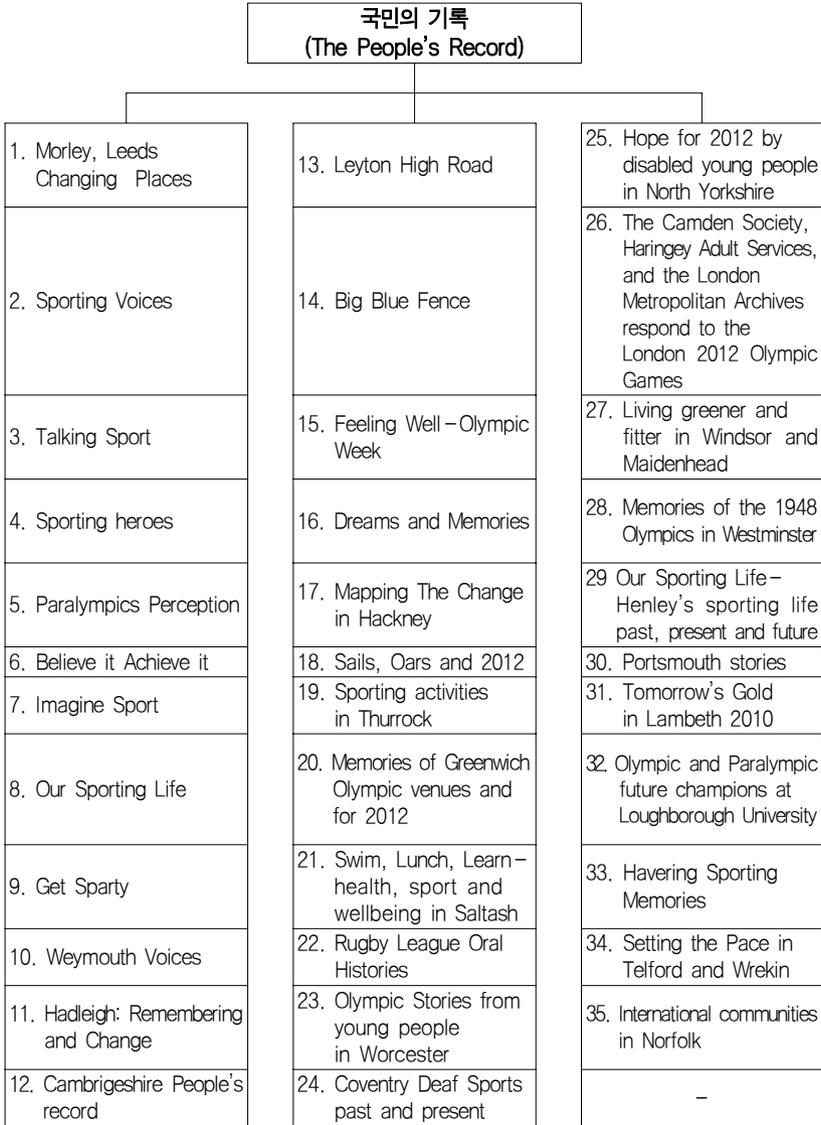
젝트는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와 지역사회 사이에 협력으로 세워진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지역 사회의 기록들을 발견하고 창조하였다. 여기서 만들어진 기록, 사진, 필름, 구술사, 예술품들은 미래에 중요한 아카이브가 될 것이다²⁷⁾.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 기록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개별사업 중 장애인과 같은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2가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porting Voices」 사업의 내용이다.

Sporting Voices는 학습장애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격한 장면과 증언을 통해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와 일반적인 스포츠의 영향을 관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스포츠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작업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것은 그들의 삶에 필수적이고 숨은 주인공 역할로 빛났다. 프로젝트가 6개월 넘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또한 그 학생들이 그들 개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교사, 조력자, 부모, 자원봉사자, 그리고 보호자들까지 포함하였다. 학습장애를 지닌 학생들은 지역 도서관에 보관된 사진들을 조사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스포츠가 변했고, 현재의 스포츠 의상과 기구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모든 참가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고 사진과 함께 오디오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²⁸⁾

27) Sophia Mirchandani, Katie Norgrove, "The People's Record Community Projects Evaluation 2010-11 Final Report for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p.2.

28) 국민의 기록 홈페이지 참조, 2013년 12월 15일.

〈그림 3〉 국민의 기록(The People's Record)의 세부사업



다음은 「Paralympics Perceptions」 사업의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패럴림픽 경기로부터 생기는 영향과 가치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역대학의 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그룹은 5명의 패럴림픽 선수들이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스포츠를 하지 않는 7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이 인터뷰는 건강, 스포츠, 복지에 관한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젊은 운동선수의 열망에 대한 2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대학 도서관과 올림픽 리서치 센터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²⁹⁾

이들 사업을 포함한 개별 사업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에는 유소년부터 학생들을 포함한 전 연령대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까지 참여시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한편, 기록 생산자의 스펙트럼을 넓혀 나아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기록 사업은 이벤트 이전단계의 기록화를 위한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한 다양한 계층의 경험과 반응을 기록화 하는 작업은 사회적 측면을 넘어서 역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이벤트 운영의 기록화

(1) 올림픽 대회 지식관리 사업의 개요

올림픽 경기를 개최할 때마다 새로운 올림픽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이하 OCOG)가 설립되고, 개최 도시도 매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개최국에 따라 그 문화도 서로 다르다. 이로

29) 국민의 기록 홈페이지 참조, 2013년 12월 15일.

인해 지금까지 어느 OCOG에서 다음 OCOG로 대회 운영 방법이 효과적으로 전달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전의 운영 방법을 모르는 개최국 OCOG는 올림픽 개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제27회 시드니올림픽대회를 개최한 시드니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Sydney Organiz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이하 SOCOG)도 1993년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는 이전대회와 마찬가지로 “지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와 SOCOG의 고위 운영진³⁰⁾은 대회운영 계획을 마련할 때 중심 정보부서의 마련과 기록 및 지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 결과 SOCOG는 시드니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기록과 지식을 차후 대회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림픽 대회의 운영단계에서 파생되는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³¹⁾

실제로 SOCOG는 그리스 신화의 지혜와 지식의 여신 이름을 따서 ‘아테나(Athena)’라고 불리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³²⁾. 이 시스템은 올림픽에서 이루어지는 막대한 의사소통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지식의 저장창고로서의 역할은 물론, 조직 전반의 정보와 지식 공유를 촉진시키는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성장했다. 대회가 끝난 이후 SOCOG는 이 시스템을 호주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³³⁾에 <그림 4>³⁴⁾와 같은 형태로 탑재하였다. 여기에

30) SOCOG 직원은 이전 대회였던 애틀랜타 올림픽 또는 다른 올림픽에서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 확고한 지식문화와 정보 습득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Kristine Toohey, 2013년 4월 15일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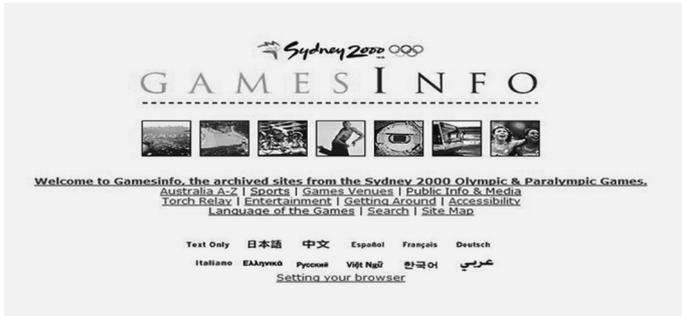
31) Halbsirth, S. & Toohey, K, “The Olympic Game and Knowledge Management: a Case Study of the Sydney Organiz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p.91.

32) Halbsirth, S. & Toohey, K, “The Sydney Organiz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and knowledge management: learning from experience”, p.13.

33) <http://pandora.nla.gov.au/>.

는 시드니올림픽대회 관련 정보를 포함해 차기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매뉴얼, 교육자료, 워크숍 자료, 연구자료, 각종 프로그램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다³⁵⁾(천호준, 인상우, 2011: 75).

〈그림 4〉 시드니올림픽대회 정보시스템(아테나: Athena)



이 지식경영시스템에 탑재된 자료는 2000년 11월 IOC와 SOCOG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노하우 전달(Transfer of Knowledge: TOK) 프로그램에 의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와 2004년 아테네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게 전달되었다³⁶⁾. 실제로 이 자료들은 5백만 호주 달러에 판매되어 경제적 파생가치를 창출하였고, 이 자료를 입수한 해당 조직위원회는 자국의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있어 이 자료를 중요하게 활용하였다.

(2) 주요 내용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이후 결과보고서만을 제출했던 이전 대회

34) <http://www.gamesinfo.com.au> 홈페이지 참조, 2014년 3월 8일.

35) 천호준·인상우, 「올림픽유산으로서의 올림픽 기록사료 관리」, 75쪽.

36) Halbsirth, S. & Toohey, K, “The Olympic Game and Knowledge Management: a Case Study of the Sydney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p.91.

조직위원회와는 달리 SOCOG는 이벤트 운영단계를 대회준비, 운영, 종료단계별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기록 및 지식관리 활동을 설정하고 수행하여 이를 통해 생성된 기록과 지식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단계별 중요 업무와 주요활동은 다음 <표 6>³⁷⁾과 같다.

<표 6> 이벤트 운영의 단계별 지식관리 활동

시기		중요 업무	주요 활동
대회 준비 단계	Start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수집과 습득 - 외부 환경 파악 - 정보 수집 범위의 설정 - 문서보존과 기록 관리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시스템은 모든 직원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개발 · 정보관리 정책의 수립 · 종이와 전자 기록에 대한 중앙 집중화된 문서보존 시스템 개발 · 모든 중요 기록과 문서의 효과적인 제어와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발 · 언어 제어/시소러스 시스템 개발 · 내·외부 데이터 서비스를 경유하는 정보조사 서비스 제공 · 조직을 위한 이미지와 기타 자료를 포함한 도서 수집 · 지식의 캡처와 공유를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개발
	Mid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및 문서 창조 - 내부 관리 - 정보시스템 버전 관리 - 정보 공유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문서의 구별 · 두 번째 정보환경 검사 · 공유 환경을 포함한 조직 인트라넷 개발 · 조직 전체의 효과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 늘어나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 프로세스 구현 · 지식 캡처 프로세스의 작동 · 자료실 구현 시작

37) Halbsirth, S. & Toohey, K, "The Sydney Organiz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and knowledge management: learning from experience" p.17.

	Pre Ev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정보의 협력 - 지식 창출의 주요 기간 - 증대되는 공공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 대회 정보서비스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전화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 기반 시스템의 구현 · 정보자원을 링크하는 정보 포털로서 조직 인트라넷 개발 · 대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한 정보 캡처 · 대회와 포스트게임 기간 동안 명확한 활동으로 최종 정보 검사 실시 · 경기기간의 정보서비스 전달을 위한 계획 수립
대회 개최 단계	Event implem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 정보 서비스의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인트라넷을 통한 공공 정보 협력 및 보급 · 경기시간 문서보존 서비스 제공 · 경기시간 정보 서비스와 범위로 정해진 기능을 제공 · 콜 센터 공공 정보의 보급 관리
대회 종료 단계	Post ev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빙과 조직의 마무리 방안 수립 - 유산 정보 시스템 구축 - 최종 지식 캡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하우 지식의 전수와 공식 보고서 제작을 위한 환경 구비 · 유산 계획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아카이브의 구현과 지원 · 경기에 대한 공공 정보의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공공 웹사이트 제작

〈표 6〉을 살펴보면, 기존 대회조직위원회의 관심이 적었던 대회 종료 단계의 중요도가 상당히 커졌고 이 시기 업무의 세부적인 활동이 매우 구체화되고 다양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드니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올림픽대회 지식관리 사업은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의 행위와 활동에 대한 기록화에 의미가 크다. 효과적인 기록관리 및 지식경영 시스템은 메가 스포츠이벤트 조직위원회 구성원의 업무 및 지적활동에 대한 기록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록화를 통해 산출된 자료들은 향후 대회를 운영하는 조직위원회의 업무 활동에 이용됨으로써 지역이나 국가에게 다양한 파생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27개월 동안 SOCOG는 <표 7>³⁸⁾과 같이 정교한 지식경영 도구와 프로세스를 제작해 냈다. 각각의 도구와 프로세스들은 하나의 지식경영 프로젝트이다.

<표 7> 시드니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SOCOG) 지식경영 도구와 프로세스

도구 및 프로세스	구성 요소
기록관리 프로세스 및 검색 시스템	기록 데이터베이스
올림픽대회 코드 시스템	올림픽 대회의 언어 데이터베이스 올림픽 대회의 조직 핵심 부분의 체계화
시드니 2000 올림픽대회 정보 시스템	논리적인 조직의 분류와 조직 정보 법적 의무, 운영 방침/절차,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중요 사내 정보 출처와 연결된 사내 포탈 검색 화면, Point & Click 환경 검색 기능, 문서 내용의 승인을 위한 웹사이트와 워크플로어 운영 보안, 보안 수준, 작성자, 수정자, 승인자, 데이터 변경에 관한 문서 이력과 같은 메타 데이터 포함 버전 수정 및 기록 보존 가입과 공지-사용자에게 업데이트를 알리는‘푸시(push)’ 기능
콜 센터 운영과 스폰서 및 정부 기관들과 같은 다른 외부의 정보 제공자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조	공적인 정보만 해당 최근에 승인된 정보만 해당 분류된 검색결과를 제공해주는 강력한 검색 성능 중요한 이슈들이 모든 운영자 화면에 즉시 전달되게 하는 기능 일반인들의 논평과 태도를 포착하여 피드백 하는 기능 SOCOG 내부의 피드백 운영, 워크플로어, 요구 발생시 피드백 내용 콜 센터로 회신

38) Halbsirth, S. & Toohey, K, “The Olympic Game and Knowledge Management: a Case Study of the Sydney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p.98.

〈표 7〉과 같은 지식경영 도구와 프로세스들의 유기적인 운영은 지식이 만들어진 조직 부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직이 응집력 있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걸친 통제와 정보 흐름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시드니 올림픽의 유산으로 남길만한 지식을 추려내는 일은 효율적인 기록 보존프로세스와 다음에 언급할 ‘노하우 전달(Transfer of Knowhow)³⁹⁾과 올림픽 후 보고(Post Games Report)⁴⁰⁾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달성되었다. 올림픽 당시 시드니 2000 올림픽 정보 시스템은 막대한 공개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공개 정보 인프라 구조로 활용되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이 시스템과 정보, 지식 창고 및 보존 기록물(archive)은 소중한 자원이자 유산이 되었다. SOCOG가 마무리될 때 시드니 올림픽 정보시스템의 가치가 인정되어 올림픽 운동 종사자들,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이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추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콜 센터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 정보 인프라 스트럭처를 제공했던 공개 정보 구성요소가 추출되어 HTML 포맷으로 변환되었다. 이 콘텐츠들은 다른 시드니 2000 정보와 통합되어 2001년 9월부터 앞서 제시한 〈그림 4〉의 보존 기록물 유산 사이트에 탑재되었고 이는 현재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SOCOG 내부 지식 기반에서 나온 콘텐츠는 HTML 포맷으로 된 두 개의 제품으로 변환되었다. 노하우 전달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콘텐츠는 HTML 포맷으로 CD에 담겨 IOC에 제공되었다. 이 자료는 올림픽 운동의 소중한 유산이다. 한편, 시드니 2000 올림픽 정보 시스템 내의 SOCOG의 계획과 문

39) 노하우 전달(Transfer Knowhow)프로그램은 IOC와 SOCOG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올림픽대회 지식관리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명시적 지식들과 암묵적 지식들을 모두 5백만 호주달러에 거래한 사업을 의미한다.

40) 올림픽 후 보고(Post Games Report) 프로그램은 올림픽 현장 제52조 ‘올림픽 대회가 종료한 후 2년 이내에 프랑스어·영어 및 올림픽 대회 개최국의 국어로 작성된 충분하고 완전한 보고서를 인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은 적절한 콘텐츠는 CD 형태로 독립 정보 제품으로 변환되어 뉴 사우스 웨일즈(NSW) 주립 도서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지식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표 8>과 같다.⁴¹⁾

<표 8> SOCOG 지식프로젝트의 평가

지식 프로젝트의 성공 기준	SOCOG 지식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추가되는 자원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직원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4명의 부서 코디네이터가 프로젝트에 추가 선임됨 · 추가적인 자금이 프로젝트의 역할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과정에서 3번이나 제공되었음. SOCOG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는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믿음을 나타냄
지식콘텐츠와 사용 (문서의 수 또는 자료보존소의 접근 수)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7월 시스템을 실행할 때 약 5,000개의 문서가 있었으나 1999년 8월에 25,000개로 증가하였고 2000년 10월에는 39,000개로 증가함 · 초기에는 시스템의 “조회(hits)”수를 측정하도록 시도했지만, 정확한 측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음
특정 개인의 지원 없이 프로젝트가 지속 할 가능성(프로젝트가 개인이 아닌 조직의 주도하에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가 한 부서에 의해 주도되고, 2명의 스태프에 의해서 솔루션이 발전했지만 실행단계에 가서는 몇몇 주요 영역에서 예를 들어 경기 장소 계획 프로그램, 콜 센터 등은 그들의 운영프로세스로 지식프로젝트를 통합시켰음 · 모든 자료들은 The Sydney 2000 Games Information System에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조직 전체에 걸쳐서 진행됨
지식 경영 활동 자체 또는 상위조직의 재정적인 수익의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하우의 판매를 통해 5백만 호주달러를 획득한 것은 SOCOG의 지식관리 프로세스에서 가장 확고한 재정적 수익이었음 · 작지만 상위 조직에서 의미가 있는 수익으로는 콜 센터로 보내지는 정보의 흐름이 개선되어 정확해졌고 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41) Halbsirth, S. & Toohey, K, “The Olympic Game and Knowledge Management: a Case Study of the Sydney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에 대한 번역자료(문영준, 스포츠지식경영론 수업의 번역 자료, 2011, 10-11쪽).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상당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위와 활동을 통해 개최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나온 기록, 정보 그리고 지식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지난한 일이 된다. 그러나 <표 8>과 같이 지식관리 시스템이 차후 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다양한 파생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3) 이벤트 이후(ex-post Event)의 기록화

(1) 올림픽 구술사 사업의 개요

LA84재단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개최이후 적립된 남부캘리포니아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설 비영리기구이다. 이 재단에서는 1987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약 1년 반의 일정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역대(1948년 런던올림픽대회부터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대회까지) 올림픽 참가자를 대상으로 구술채록 사업을 실시했다⁴²⁾. 이 사업은 그간 올림픽에 대한 전통적인 역사와 미디어들의 기술(記述)들이 금메달의 개수, 새로운 스포츠 스타, 정치적인 문제들에 집중되어 온 현실을 비판하고 선수를 포함한 올림픽 참가자들의 경험과 실제 이야기를 포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⁴³⁾.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⁴⁴⁾은 다음과 같다.

42) 천호준, 「올림픽 기억의 기록화를 위한 구술채록과 관리」, 『한국체육사학회지』, 17(1), 한국체육학회, 2012, 114쪽.

43) LA84Foundation, "The Proposal file, Oral History Research Proposal Southern California Olympians 1948-1980", p.1.

44) Wayne Wilson(올림픽 구술사료 채록 사업 기획자), 2011년 2월 6일, LA84재단의 Sports Resource Center.

그동안 올림픽에 대한 기술들 즉, 대부분의 출판물은 거시적 차원을 다룬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경험, 리얼 스토리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기록들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이 사업에서는 올림픽 선수들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구술사료 수집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여러 운동종목에 걸쳐 총 56명의 구술사료가 수집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그림 5>와 같이 재단 홈페이지⁴⁵⁾에 원문이 탑재되었고 이들 자료는 일반인들 누구나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⁴⁶⁾

<그림 5> 올림픽 구술사 홈페이지



45) LA84재단 홈페이지, <http://www.la84foundation.org>, 2012년 12월 18일.

46) 참고적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검토를 위해 재단 홈페이지를 재방문해 확인 (2014년 6월 8일)한 결과 홈페이지의 수정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 내에 Olympian Oral Histories 부분은 삭제되었으나 구술자료 모두는 원문 검색과 출력이 가능한 상태였음.

(2) 주요 내용

올림픽 구술사 프로젝트의 구술대상 선정기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과 인종을 포함한 종목의 다양성이었다. 그동안의 공식적인 기록들이 인기 종목의 스포츠스타와 정치적으로 중요한 논쟁들만을 다룬 현실을 비판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이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구술자들은 비인기 종목의 참가선수와 올림픽에 참가한 코치들과 이민자들이 포함되었다⁴⁷⁾. 한편, 구술채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림픽 구술사료 수집을 위한 질문들은 올림픽 참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과 경험뿐만이 아니라 올림픽 참가가 자신에게 준 의미와 같은 주관적 경험들을 읽어내는 문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구술자에 대한 질문 문항을 구성할 때 주로 참고한 내용들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올림픽 구술 채록을 위한 기초 질문영역과 내용

구분	세부내용
올림픽 참가이전	올림픽 참가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 / 친구들의 태도 올림픽 참가 결정에 대한 자신의 느낌
올림픽 참가기간	올림픽 참가에 관한 사실들(시간, 장소, 활동 등) 올림픽 참가에서 가장 좋거나 나쁜 경험들 올림픽 참가기간 중의 정치적 이벤트와 인사들
올림픽 참가이후	올림픽 참가이후 삶의 변화 올림픽 참가이후 스포츠 참여여부 올림픽 참가이후 자녀에게 운동 권유 여부

이 사업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이전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남겨지지 않은 즉, 결락(缺落)기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의 실마리를 제공해

47) 천호준·한동욱·나영일, 「올림픽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미국 아마추어운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18(2), 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07, 120쪽.

준다. 그동안 메가 스포츠이벤트에서 남겨진 기록들을 분석해 보면 먼저, 이벤트 이전단계에서 기록화 되어 대회 개최 이후에 남겨진 기록들은 대부분 거시적 차원의 공적기록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이벤트 운영단계에서는 효과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기록이 인멸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⁴⁸⁾. 올림픽 구술사 사업은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전자의 경우, 일부 소외 계층의 경험을 구술로 채록함으로써 이들의 체험을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내어 공적기록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업무 활동을 담당했던 담당자의 구술 채록을 통해 차후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구술 채록은 대회가 종료된 이후에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⁴⁹⁾이 될 수 있다.

4. 논의

지금까지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이전단계, 운영단계 그리고 이후단계 별로 각각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48) 천호준, 올림픽 사료의 기록학적 평가, 100쪽.

49) 이벤트 이후의 기록화 사업으로는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과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과 관련한 사례들이 조사되었으나 이들 사례의 경우 올림픽 개최 이후 남겨진 유물과 기록들을 관리하는 노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는 올림픽 구술사 사업만을 분석하였다. 향후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이후의 유물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에서 이들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바르셀로나올림픽미술관홈페이지, <http://www.fundaciobarcelonaolimpica.es/index.asp>, 애틀랜타역사센터홈페이지, <http://www.atlantahistorycenter.com/about-us/history/collections/museum/centennial-olympic-games-collection>, 2014년 10월 20일 검색).

첫째, 이벤트 이전단계의 기록화를 위해서는 영국의 MLA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MLA에서는 런던올림픽대회를 후대에 전승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대회 개최이전부터 이를 기록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은 런던올림픽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여러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법(구술 인터뷰를 포함한)으로 수집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온전한 기록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후대에 전승해야 할 기록유산에는 대회 개최 이후의 결과보고서나 단행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에 대한 기대와 같은 당대의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들을 채록한 기록들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은 역사가를 포함한 연구자들이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둘러싸고 있는 당대의 역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인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대회조직위원회나 이들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벤트 이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시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대회에 대한 기대와 성원들을 다룬 기록을 수집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해서 특정한 목적을 지닌 구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다. 구술의 수집은 대회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의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회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한 특정한 주제를 공지하고 이에 대해서 시민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남겨 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기록은 체육·스포츠 분야의 역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둘째, 이벤트 운영단계의 기록화를 위해서는 호주의 시드니 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구축한 지식관리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관리 시스템 내부에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구축된다. 왜냐하면 기록은 지식 창출의 전형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은 대회조직위원회의 업무 활동을 기록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된다. 더욱이 지식관리 시스템은 다수의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앞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 대회의 지식관리 시스템(기록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내에 탑재된 기록과 지식은 차후에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앞서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프로세스와 방법에 의해서 개최되고 운영됨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지식경영시스템은 향후 유사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여 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 줄 것이다.

셋째, 이벤트 이후단계의 기록화 방법은 미국LA84재단의 구술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한 이후에는 기록 관리를 위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LA84재단에서는 남아있는 기록유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주제로 구술 채록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당시 기록 관리의 구조적인 환경(기록관리 관련 규정 및 시스템 등)의 문제로 또는 아무리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도 결락기록은 발생할 수 있다. 결락기록은 이벤트 이전단계에서 이벤트 운영단계를 거쳐 이벤트 이후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남겨지지 않거나 폐기된 기록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락기록을 보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구술채록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소외계층의 경험을 채록하거나 대회 운영 관계 담당자들의 업무 활동에 대한 기억을 구술로 채록하는 일(업무

담당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은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기록화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사례들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이전단계부터 운영단계를 거쳐 이벤트 이후단계까지의 효과적인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 마련에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방법론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연동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전 단계에서 기록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혹은 관련 업무부서에 기록화 업무를 분장하는)하는 한편, 이 부서에 기록관리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기록화 부서에 배치된 전문가는 각 단계별로 기록화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체육·스포츠 현장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역사적 의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한 도시나 국가에서는 이를 기록화 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이 연구는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인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효과적인 기록화를 위해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단계별로 국외의 기록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시간적 흐름의 단계를 고찰하였고,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 사업을 주관한 기관을 방문 조사하여 각 사업의 개요 및 세부내용을 분석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대략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벤트 이전단계의 기록화 사례인 런던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한 국민의 기록 사업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경험과 반응을 기록화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전의 기록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록의 주체를 확대하여 이전 기록과는 다른 풍부한 내용을 담은 기록을 생성케 한다. 둘째, 이벤트 운영단계의 기록화 사례인 시드니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올림픽대회 지식관리 사업은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행위와 활동을 기록화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생성된 대회 운영의 업무 기록과 지식 등은 유사한 스포츠이벤트 운영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이다. 셋째, 이벤트 이후단계의 기록화 사례인 올림픽 구술사 사업은 이벤트 전반에 걸쳐 발생된 결락기록을 보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이벤트 전 과정에서 남겨지지 않은 기록을 보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별 시간 프레임에 적합한 기록화 사례를 분석하여 차후 개최 예정인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확보하였으나 이들 방식들의 구체적인 현실화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는 국내에서 개최가 예정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한 정책 제안의 자료로서 일정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해당 기록의 관리 방법론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이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 인적·물적 자원, 기록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한시조직의 기록 관리를 다룬 이론들의 천착이 요구됨을 제기한다.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온전한 기록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Case Study on a Documentation of Mega Sports Event

Cheon, Ho J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eveloped case of archiving on Mega Sport Event for searching effective method on a documentation of Mega Sport Event.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method was using about book, thesis and data of internet homepage for exploring the stage on Mega Sports Event and case of Mega Sports Event record management. The field study was conducted about institute related to Olympic record management institution for analysing Mega Sports Event record manag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ing:

Firstly, 2012London Organiz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s case(The People's Record Project) is useful to ex-ante event phase. Secondly, 2000Sydney Organiz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s case(Olympic Games Knowledge Management Project) is useful to event operation phase. Thirdly, LA84Foundation's case(Olympic Oral History Project) is useful to ex-post ev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hich came up with the study result above can be presented as follow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three case for documentation about Mega Sports Event. Lastly,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useful to Mega Sports Event record management institution.

For the more, it will be conducted to study law of Mega Sport Event

record management, humane and Material resource and method related to record management of the Mega Sports Event organizing committee.

Key words : Sports Event, Mega Sports Event, Sports Record, Sports Legacy, Documentation